

EDCF ISSUE PAPER

EDCF 이슈페이퍼 Vol.6 No.2 2017년 12월

공적개발금융(Official Development Finance) 수단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은 다양한 국제 자금이 개도국 개발재원에 추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적개발금융 수단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DAC는 2016년중 회원국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개발금융(Official Development Finance)을 통해 동원되어 개도국에 지원된 민간재원의 규모 및 특징을 분석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DAC 사무국은 다변화된 ODA 측정 논의의 일환으로,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기존 측정 방법론의 적정성, 민간과의 협조용자에서 전통적인 대출, 증여의 재원 동원효과 인정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함께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ODA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보고 방법론 및 설문결과 등 DAC의 민간재원 측정 논의동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Contents

1. 논의 동향
2.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보고 방법론
3. 2016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 결과
4. 시사점

1. 논의 동향

(1) 논의배경

2015년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¹⁾ 이후 SDGs²⁾, 파리기후협약 달성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연간 2.5조불 이상의 추가적인 자원 동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발재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UNCTAD, 2014)

개도국 개발 지원을 위한 자원 논의는 다양한 국제 자금이 개도국 개발재원을 위해 추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재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재원 규모 측정과 관련하여 DFI³⁾와 같은 공적개발기관이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민간금융 수단(PSI)을 ODA로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이후 DAC 사무국은 공적개발금융 수단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을 지속하였다. 또한 2016년 4월 통계지침 개정을 통해 공적개발기관의 금융(보증, 신디케이트 대출, 집합투자수단)을 통해 개발목적사업에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에 대한 측정 및 보고 방식을 수립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공여국들이 민간재원 동원액의 추가적인 통계보고를 통해 개발목적의 공적자금을 민간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i) 민간재원 동원의 개념과 특징, ii) 현재까지 합의된 측정방법, iii) DAC 서베이를 통해 취합된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결과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iv) 민간재원 동원액 조사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민간재원 동원의 개념

민간재원 동원(Mobilisation)의 개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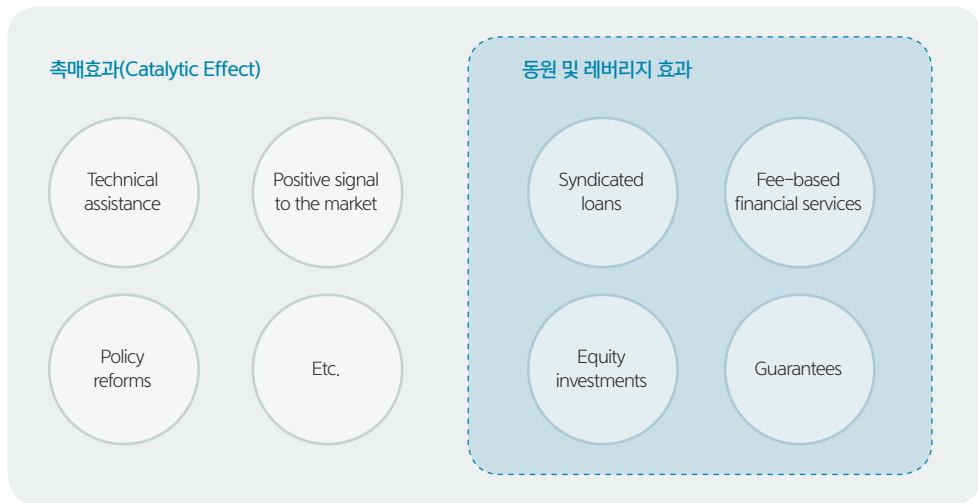
DAC 통계에서 민간재원 동원(Mobilisation)이란 ODA 자원의 개입을 통해 발생한 추가 민간재원의 흐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간자금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개발재원을 통해 동원된 모든 민간재원이 보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DAC에서 민간재원 동원(Mobilisation)은 직접적인 재원동원 효과를 가지는 보증, 신디케이트 대출과 같은 공적개발재원을 통한 동원으로, 지식이전 및 정책도입을 통한 간접적으로 동원효과를 가지는 촉매효과(Catalytic Effect)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OECD, 2014)

1) Addis Ababa Action Agenda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그림 1> 촉매효과와 재원동원의 차이점



(출처 : OECD, 2014: 5)

국제적으로 동원(Mobilisation)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WB에서는 동원(Mobilisation)을 직접동원(Direct Mobilisation), 협조융자(Co-financing), 촉매효과(Catalytic Effect)로 구분하고 있다. (OECD, 2017a)

① 직접동원(Direct Mobilisation)

DAC의 동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적재원 투입이 민간재원 확보로 이어져 특정 사업 실시가 가능하게 된 경우로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다.

② 협조융자(Co-financing)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자로 정의된다. 단순히 문서상 기록된 외부기관의 자금조달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기관의 투자가 공적재원으로 촉진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③ 촉매효과(Catalytic Effect)

직접적인 자원투자 외에도 지식이전이나 정책도입과 같은 비금융적 요소(Non-monetary Contribution)를 의미하는 간접적인 동원(Indirect Mobilisation)으로, 세 개의 개념 중에서 측정이 가장 어렵고 모호하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동원은 OECD DAC에서 정의하는 민간재원 동원으로 직접동원만을 의미한다. 국내외 민간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동원된 금액으로 한정되며, 공적기관으로부터 동원된 금액은 이미 ODA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민간자원 동원액 측정/보고 방법론

2014년 논의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보증, 신디케이트 대출, 집합투자수단(CIVs)⁴⁾에 대한 민간자원 동원액 측정 및 보고방식이 합의되었다. 현재 크레딧라인, 지분투자에 대한 민간자원 동원효과 측정방식을 추가로 승인할 준비 중이며, 해당 방법론이 승인될시 2018년 보고(2017년 지원액)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합의된 보증, 신디케이트 대출, 집합투자수단(CIVs)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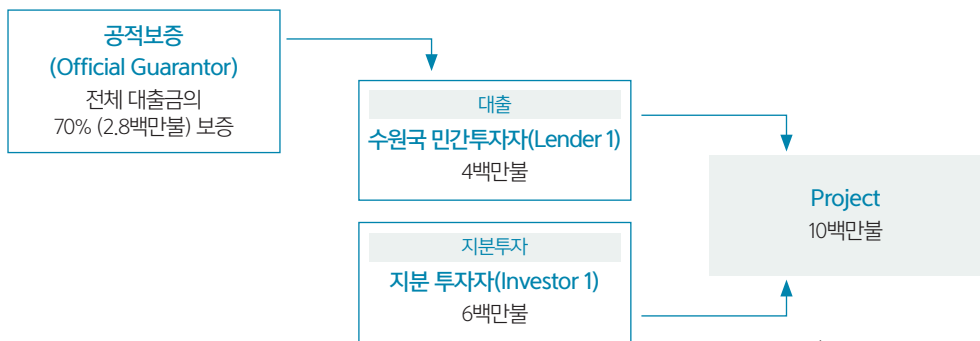
(1) 보증(Guarantee)

보증은 지원대상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투자자에게 차주(Borrower)의 채무불이행시 공적기관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사업에 공적기관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자원 동원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보고액 산정기준은 민간투자자가 공적기관의 보증 없이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보증수혜자가 제공하는 민간대출 전체 금액이 민간자원 동원액으로 인정된다.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원국 민간투자자(Lender 1)가 4백만불을 대출하고, 지분투자자가 6백만불을 투자하여 총 10백만불로 이루어진 사업이 있다. 공적보증(Official Guarantee)이 민간투자자 대출의 70%인 2.8백만불을 커버하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OECD, 2016)

본 사례에 보증을 제공한 공적기관이 DAC 앞 보고 가능한 민간자원 동원액은 총 4백만불이다. 만약 복수의 보증제공기관이 보증(Co-guarantees)을 제공한 경우, 보증제공 금액에 비례하여(Pro-rata) 동원액 보고 금액을 배분한다.

<그림 2> 공적보증 구조



(출처 : OECD, 2016: 37)

4)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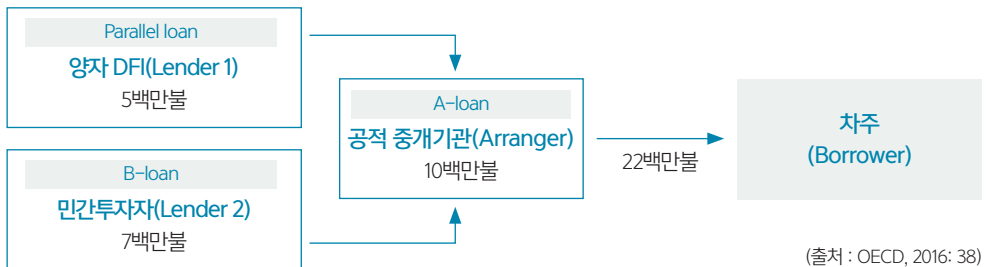
(2)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⁵⁾

신디케이트 대출의 보고액 산정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자는 공적기관이 차주 또는 중개기관(Arranger, A-Loan 대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공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다자개발은행(MDB⁶⁾), DFI 등 공적 중개기관(Arranger)은 전체 민간재원 동원액의 50%를 배분받으며, 나머지 50%는 공적 거래 참가자들이 전체 공적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Pro-rata) 배분된다. (OECD, 2016)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FI 등 공적 대출기관(Lender 1)이 5백만불을 대출하고, OECD국 민간투자자(Lender 2)가 7백만불, 공적기관인 중개기관(Arranger)이 10백만불을 추가 약정하여 총 22백만불의 자금을 차주 앞 대출하였다.

본 사례에서 동원된 민간투자금액은 총 7백만불이며, 보고금액은 중개기관(Arranger)과 공적 대출기관(Lender 1) 앞 기본원칙에 따라 배분한다. 동원액의 절반인 3.5백만불은 중개기관에게 배분되며, 나머지 3.5백만불은 중개기관과 공적 대출기관(Lender 1) 앞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Pro-rata) 배분한다.

<그림 3> 신디케이트 대출



<박스 1> 민간재원 동원액 보고금액: 신디케이트 대출

■ 중개기관 할당분	■ 전체투자자 할당분	(단위 : 천)
중개기관(Arranger)의 민간재원 동원 보고금액		
$(U\$7,000 \times 50\%) + U\$10,000 / U\$15,000 \times (U\$7,000 \times 50\%) = U\$5,833$		
공적기관(Lender 1)의 민간재원 동원 보고금액		
$U\$5,000 / U\$15,000 \times (U\$7,000 \times 50\%) = U\$1,167$		

5) 신디케이트 대출이란 금융기관 등이 차관단(Lender) 측 신디케이션을 구성하여 공통의 거래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대출하여 주는 금융거래 형식을 말한다. 주로 대출금의 규모가 커서 어느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대출을 하기에 자금부담이 너무 크거나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커서 복수의 금융기관에게 분산하고자 할 경우에 행해진다. (이미현, 고훈, 2004)

6)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3) 집합투자수단(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CIVs)⁷⁾

집합투자를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은 펀드 모집기간(Fund-raising Period)중에 약정된 민간투자금액의 총합계이며, 동원액은 최고위험 트랜치에 투자한 공적기관 앞 귀속된다. 최고위험 트랜치에 복수의 공적기관이 투자한 경우, 동원액의 50%는 최고위험 트랜치에 투자한 공적기관 앞 균등배분, 나머지 50%는 모든 공적투자기관 앞 투자 비중에 따라 비율대로 배분된다. (OECD, 2016)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8년 투자자가 모두 동등한 조건에, 개방형(Open-ended)⁸⁾ 집합투자기구를 신설했다. 공적투자기관인 DFI 1과 DFI 2는 각각 10백만불, 4백만불을 가장 리스크가 큰 트랜치에 투자하였으며, 수원국 민간투자자 1은 2012년 6월에 6백만불을 투자하였다. 2013년 1월에는 공적투자기관 DFI 3가 메자닌/시니어 론 부분에 12백만불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 4월 상위소득국 민간투자자 2가 8백만불을 추가 투자하였다.

<표 1> CIVs 사례

(단위: 천US\$)

투자자	'08년 10월	'12년 6월	'13년 1월	'13년 4월
DFI 1 - 최고위험투자자	10,000			
DFI 2 - 최고위험투자자	4,000			
DFI 3 - 메자닌/시니어론 투자자			12,000	
민간투자자 1		6,000		
민간투자자 2				8,000
합계	14,000	6,000	12,000	8,000

본 사례에서 거래를 통해 동원된 민간투자금액은 총 14백만불이며, 동 민간투자 동원액을 DAC앞 보고할 수 있다. 14백만불의 보고금액은 공적기관인 DFI 1, DFI 2, DFI 3가 앞서 언급된 기본원칙에 따라 배분 받는다. 동원액의 50%인 7백만불은 최고위험투자자인 DFI 1과 DFI 2가 균등배분 받으며, 나머지 재원의 50%는 리스크와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 앞 투자금액에 비례하여(Pro-rata) 배분된다.

7) 집합투자수단이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 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8) 개방형(Open-ended Fund)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자유로우며, 환매가 자유롭지 않은 경우는 폐쇄형펀드(Close-ended Fund)로 분류

<박스 2> 민간재원 동원액 보고금액: CIVs

■ 고리스크 할당분 ■ 전체투자자 할당분

(단위: 천)

2012년 통계 보고금액

$$\text{DFI 1: } 1/2 \times (\text{U\$6,000} \times 50\%) + \text{U\$10,000} / \text{U\$14,000} \times (\text{U\$6,000} \times 50\%) = \text{U\$3,642}$$

$$\text{DFI 2: } 1/2 \times (\text{U\$6,000} \times 50\%) + \text{U\$4,000} / \text{U\$14,000} \times (\text{U\$6,000} \times 50\%) = \text{U\$2,357}$$

2013년 통계 보고금액

$$\text{DFI 1: } 1/2 \times (\text{U\$8,000} \times 50\%) + \text{U\$10,000} / \text{U\$26,000} \times (\text{U\$8,000} \times 50\%) = \text{U\$3,538}$$

$$\text{DFI 2: } 1/2 \times (\text{U\$8,000} \times 50\%) + \text{U\$4,000} / \text{U\$26,000} \times (\text{U\$8,000} \times 50\%) = \text{U\$2,615}$$

$$\text{DFI 3: } \text{U\$12,000} / \text{U\$26,000} \times (\text{U\$8,000} \times 50\%) = \text{U\$1,846}$$

3. 2016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 결과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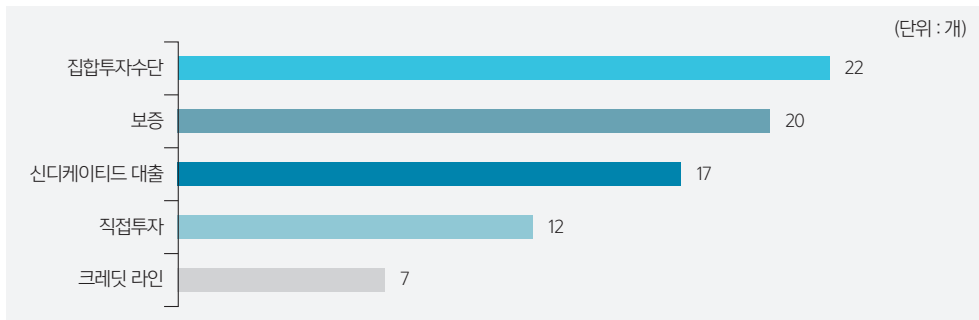
OECD DAC 사무국은 2014년 설문을 시작으로 매년 민간재원 동원액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3년 개발협력 수단으로서 보증에 대한 최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개발금융기관(DFI)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 방법론을 조사하였다. 2015년에는 2012~2014년 보증, 신디케이트 대출과 집합 투자기구 방식의 공적개발금융 지원을 통해 동원된 민간자금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활동을 기반으로 2012~2015년 중 보증, 신디케이트 대출, 집합투자기구 등 3개 금융 수단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 동원액 규모를 측정하였다. 크레딧라인과 직접투자에 대한 데이터도 2016년에 개발된 측정방법을 통해 시범적으로 측정되었다.

원조기관, 양자 및 다자 DFI, 개발은행, PPP 및 재원동원을 목적으로 한 투자펀드 등 총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72개 기관이 설문에 회신하였다. 35개 기관이 1개 이상의 민간재원 동원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많이 운영 중인 지원방식은 CIVs, 보증, 신디케이트 대출 순으로 집계되었다.

9) 본 장은 'OECD(2017). Amounts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s.'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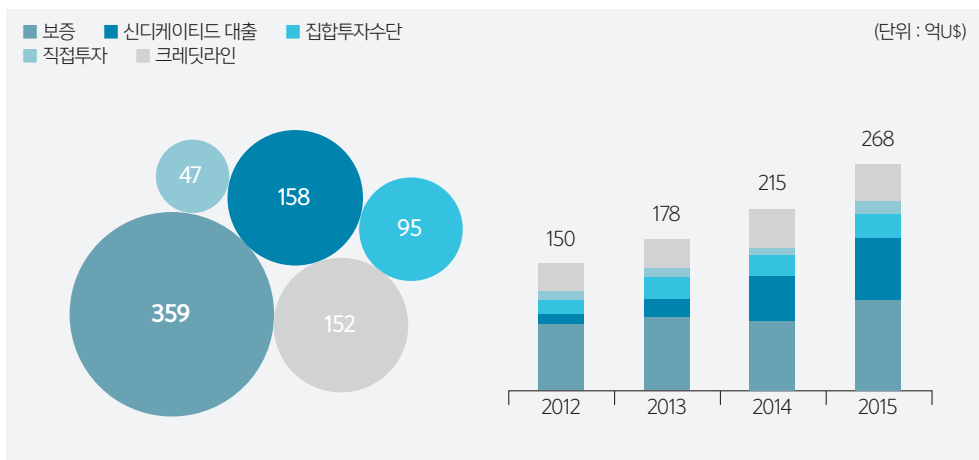
<그림 4> 민간재원 동원수단별 응답 기관수



(출처 : OECD, 2017a: 4)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12~2015년 누적 동원액은 811억불이고 보증을 통한 동원액이 359억불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면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민간재원 동원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5> 동원수단별 민간재원 동원액('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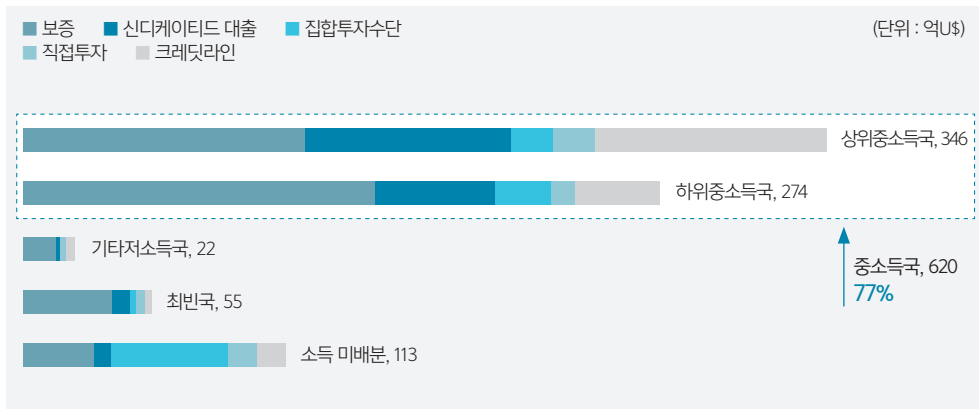


(출처 : OECD, 2017a: 4)

(1) 소득그룹

소득그룹별로 살펴보면 중소득국(Middle-income Countries) 사업이 620억불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빈국의 경우 민간재원 동원액은 55억불로 전체의 7%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다양한 지원수단이 사용되지만, 최빈국에서는 민간재원 동원수단으로 보증이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 소득그룹별 민간재원 동원액('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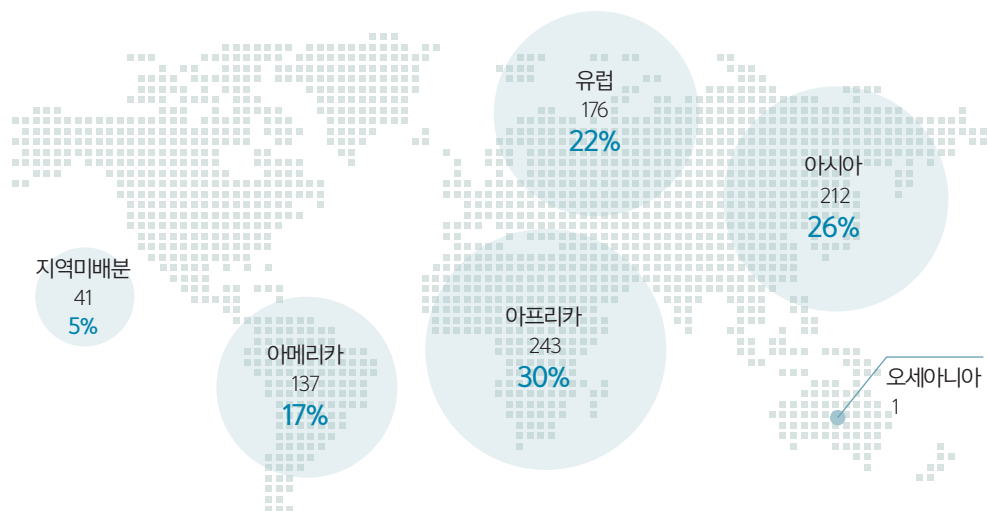
(출처 : OECD, 2017a: 5)

(2)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민간재원 동원액은 243억불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액이 동원되었다. 아프리카 민간재원의 62%는 보증을 통하여 동원되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지역은 73%가 보증을 통해 동원되어 최빈국이 밀집되어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보증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지역별 민간재원 동원액('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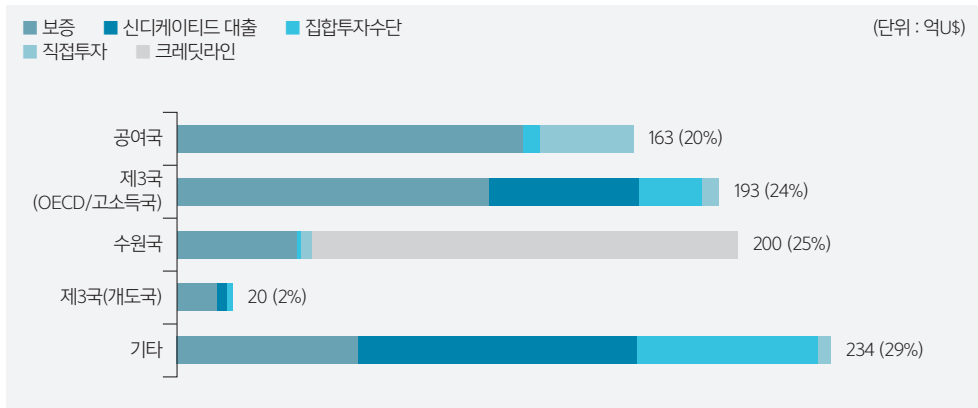
(단위 : 억US\$)



(출처 : OECD, 2017a: 5)

투자국의 비율로 살펴보면, 전체 민간투자액의 44%를 OECD 회원국을 비롯한 고소득국이 투자하였으며, 개도국으로부터의 투자액도 27%에 이른다. 지원수단별로는 보증, 신디케이트 대출, CIVs 투자의 경우 고소득국부터 개도국까지 다양한 출처의 투자를 동원하는데 반해, 직접투자는 주로 공여국으로부터 동원 되고 크레딧라인은 개도국의 현지자원을 동원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민간재원 동원액 출처('12-'15)



(출처 : OECD, 2017a: 6)

(3) 양·다자 기관

민간재원 동원액의 2/3 이상이 다자개발은행(MDBs)을 비롯한 다자기구의 지원을 통해 발생했다. 대부분의 MDBs는 신디케이트 대출(IFC¹⁰⁾, EBRD¹¹⁾, IADB¹²⁾) 과 보증(MIGA)¹³⁾을 민간재원 동원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EIB)¹⁴⁾은 크레딧라인을 주로 활용했다.

민간재원 동원액의 36% 이상이 양자 DFI를 통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DFI의 경우 기관별로 주로 활용하는 상품이 상이했다. 미국(OPIC)¹⁵⁾, 프랑스(AFD)¹⁶⁾ 등은 보증을 주로 사용하였고, 영국(CDC)¹⁷⁾은 CIVs 투자를, 덴마크(IFU)¹⁸⁾는 기업 앞 직접투자를, 독일(KfW)¹⁹⁾은 크레딧라인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미국(OPIC)이 전체동원액의 17%를 차지하여 가장 큰 금액을 동원한 DFI로 밝혀졌다.

10)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1)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2)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3)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4) European Investment Bank

15)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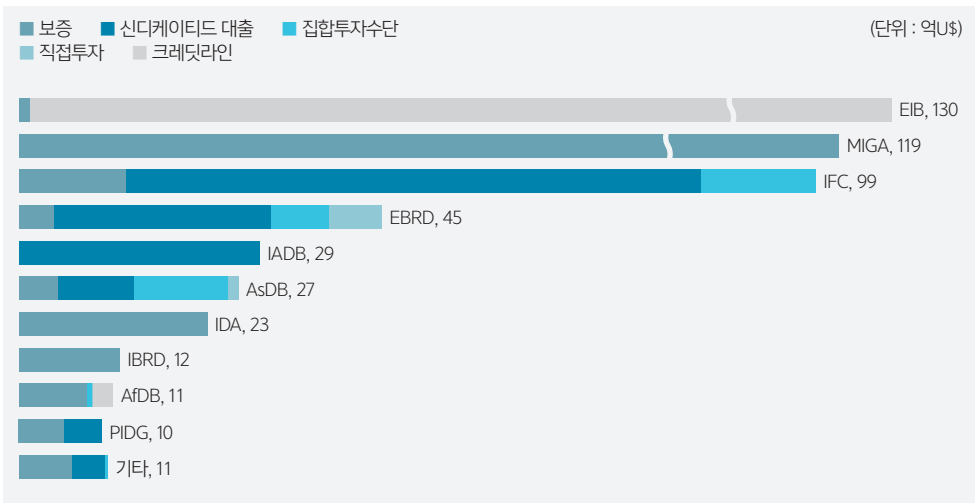
16) French Development Agency

17) Common 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18) Investment Fund for Development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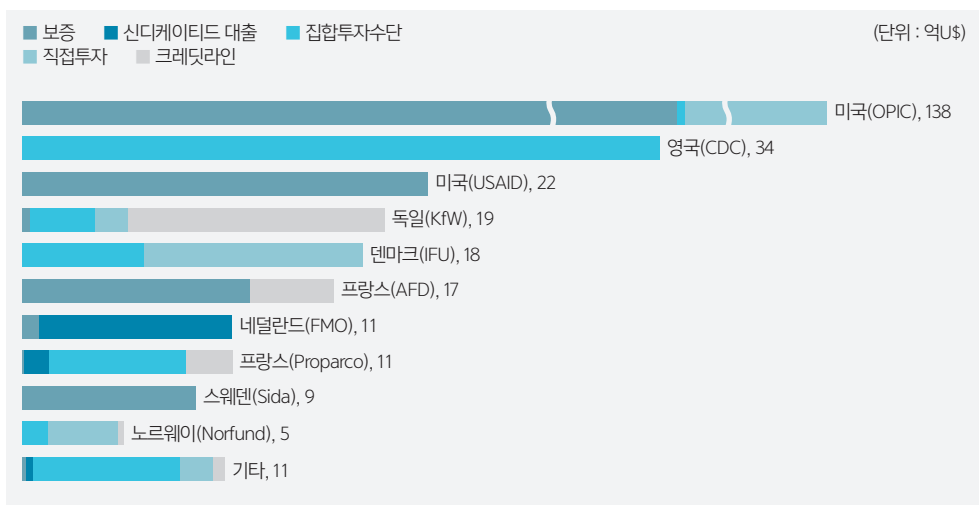
19) Bank aus Verantwortung

<그림 9> 다자 지역개발은행별 민간재원 동원액('12-'15)²⁰⁾



(출처 : OECD, 2017a: 7)

<그림 10> 양자 원조기관별 민간재원 동원액('12-'15)



(출처 : OECD, 2017a: 7)

20)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sDB: Asian Development Bank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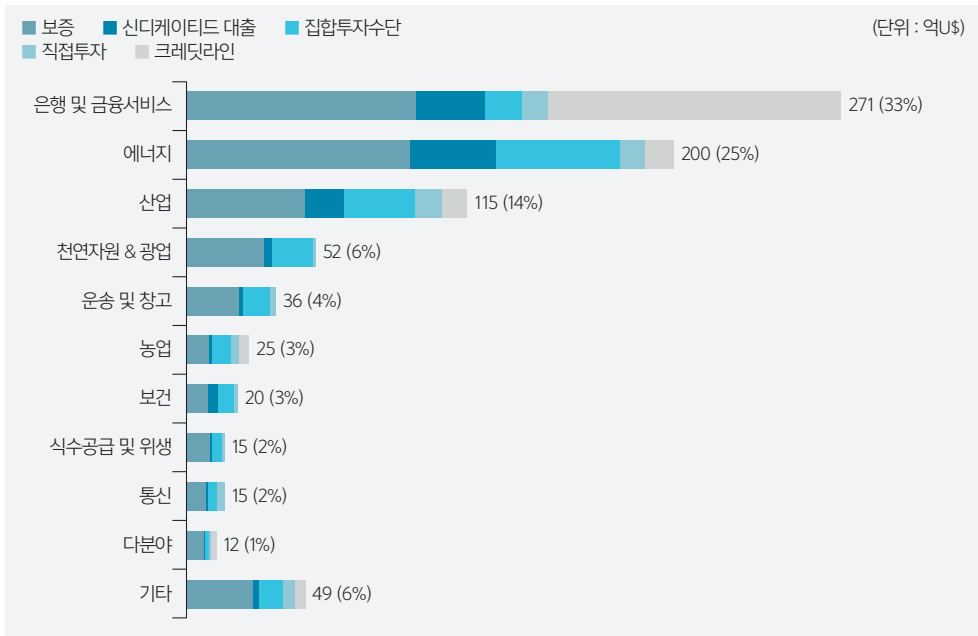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PIDG: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4) 분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은행 및 금융이 전체 금액의 33%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에너지(25%), 산업(14%) 분야 순으로 민간재원 동원액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은 전 분야의 민간재원 동원에 고르게 활용되었으나, 지원수단의 특성상 크레딧라인은 금융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신디케이트 대출과 CIVs 투자는 에너지와 산업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 분야별 민간재원 동원액('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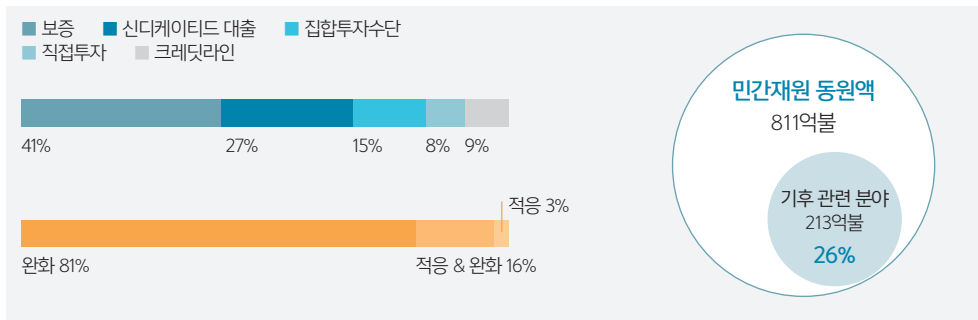
(출처 : OECD, 2017a: 8)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동원액

전체 민간재원 동원액의 26%(213억불)가 주로 보증 및 신디케이트 대출을 통해 기후변화 사업에 지원되었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81%는 기후변화 완화부분에 투자되었으며, 3%만이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지원되었다.

미국이 44억불로 전체 양자기관 합계금액의 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민간재원을 동원하였으며, 다자기구 중에서는 MIGA가 28억불을 지원하며 가장 많은 민간재원을 동원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후변화완화에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에너지분야가 전체 동원액의 70%를 차지하며 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분야에 지원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간재원 동원액('12-'15)



(출처 : OECD, 2017a: 8)

4. 시사점

DAC의 이번 민간재원 동원액 조사는 2030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논의를 위한 기반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방법론의 실행가능성 입증을 통해 향후 추가적인 통계보고가 가능해져 공여국들이 개발목적의 공적자금을 민간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OECD DAC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PSI 관련 ODA 현대화, TOSSD 프레임워크 및 혼합금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2017a)

특히, 본 조사는 혼합금융이 민간재원 동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사시 사용된 민간재원 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혼합금융을 통해 개발사업에 동원된 비개발 목적의 자금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OECD, 2017a)

또한 본 조사는 기후변화 대응과도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재원은 SDGs 달성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관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민간재원 동원 측정방법은 DAC와 기후변화 분야 자원의 흐름 추적을 위해 설립된 Research Collaborative²¹⁾의 공동 작업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민간재원 동원액을 추적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종합적인 자원파악을 위한 핵심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OECD, 2017a)

특히, 금번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공공정책 및 역량 강화 등의 비금융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공정책과 역량강화 등의 촉진적 효과(Catalytic Effects)를 측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OECD, 2017a)

21) 2013년 기후변화대응 공공-민간재원 흐름 추적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OECD가 주최하고, 정부-연구기관-국제금융기구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처럼, 민간재원 동원액 조사는 1) SDGs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확충의 핵심과제인 민간분야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2) 기후변화에 대한 공적·민간 재원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3) 향후 혼합금융 등 민간재원 동원액 파악을 위한 측정 방법론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4) ODA 개념의 재정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적재원 투입과 민간재원 동원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은 그동안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ODA 사업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개도국 민간부문 발전이 SDG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발전 요소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민간 부문개발 지원 방안을 설립 할 필요가 있다. 국제 ODA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도 과거의 전통적인 원조형태에서 벗어나 민간부문 자원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도국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다.

OECD DAC가 언급했듯이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DFI와 비슷한 활동 연혁이 있으며, 실제 유럽 DFI의 해외투자 금융지원 활동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금융과 자본투자과 기능, 목적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기관의 DFI 기능을 살려 PSI를 활용한 개도국 민간지원을 강화하여 한국 개발협력의 지원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임소진, 2015)

민간부문 지원은 현재 공적재원으로만 조달되고 있는 우리나라 개발분야의 규모를 혁신적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다. 공적재원을 통해 민간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의 참여확대는 단순한 자원의 확대를 넘어선 개발분야 콘텐츠의 다양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분야의 기술·경영 기법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축적된 노하우 공유를 통해 개발분야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지식을 가진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개발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나라 ODA의 다양한 자원 유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수단 유형으로 보고가 가능하거나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OECD 및 국제사회에서 진행 중인 통계 관련 논의를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다변화된 ODA를 적절히 보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 보고기관으로서의 전방위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를 통해 국제사회 ODA 패러다임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 개발협력의 미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미현, 고훈 (2004). 연재 :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3 : 국제대출계약의 특징과 구조-신디케이트론을 중심으로.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전문 저널(BLF) 제79호. 서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임소진 (2015). ODA 현대화와 민간재원 I: 민간금융수단(PSI)과 개발금융기관(DFI). 이슈페이퍼 2015(4): 1-18.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ing in the SDGs: An Action Plan. Switzerland, UNCTAD.
- (2014). Towards a More Comprehensive Statistical Framework for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A Proposal to Measure Amounts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in DAC Statistics. DCD/DAC/STAT(2014)12. Paris, OECD.
- OECD (2016).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 Addendum 1. DCD/DAC(2016)3/ADD1/FINAL. Paris, OECD.
- (2017a). Amounts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s. Paris, OECD.
- (2017b). Continued Methodological Work on Measuring Mobilisation. DCD/DAC/STAT(2017)22/REV. Paris, OECD.
- Research Collaborative Tracking Private Climate Finance. (n.d.). 검색일 2017년 12월 18일, 출처 OECD홈페이지: www.oecd.org/env/researchcollaborative

EDCF 이슈페이퍼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동향 및 현안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입니다.
본지의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